

“지리산 케이블카 정책 시대변화 반영 전환해야”

추진위 등 지역단체 공동성명 단일 노선 원칙 폐지 등 4개항 요구 환경부 “전문위 구성...방향 논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정부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구례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구례군 소상공인연합회, 구례군 지체장애인협회, (사)대한노인회 구례지회, 지역발전위원회, 지역 환경단체 등 구례군 지역사회와 시민단체가 13일 구례군 성삼재 주차장에서 환경부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위원회 김영의 위원장은 이날 “15년 전 수립된 환경부의 정책이 변화된 사회적 여건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로 지역사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전환하고, 환경영향과 공익성, 지역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속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 강조 ▲지자체 현실 반영 및 단일 노선 원칙 폐지 촉구 ▲정책 논의 과정에 지자체 참여 보장 요구 ▲지방소멸 극복, 국립공원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를 비롯해 구례군 시민단체들이 13일 구례군 성삼재 주차장에서 정부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접근권 보장, 바람직한 발전 실현 촉구 4개항을 요구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 환경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장애인·노약자 접근성 확대, 생태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구례군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공원 케이블카와 관련해 기존 정책을 분석하고,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 정책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환경부는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며 최근 여건을 감안해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 할 것이며, 올 연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례군 지역단체는 4개 요구안에 대한 타당성을 밝혔다. 먼저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15년 전 수립된 케이블카 정책은 국민 여가·관광 수요, 지역 균형 발전, 교통약자 접근성 등 변화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단일노선 원칙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자체 협의에 의한 단일 노선’ 고집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장기 정체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논의 과정 지자체 참여 보장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참여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구례군이 케이블카 설치로 관광객 유입, 일자리 창출, 교통약자 접근성 향상과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의 위원장은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기존 관광도로와 주차장 상태 복원을 통해 환경적 이익과 지리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환경부는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군, 어르신 의료서비스 한·양방 진료 ‘왕진버스’ 시행



곡성군과 곡성농협은 지난 9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의료지원 사업을 펼쳤다. <사진> 곡성을 문화체육관광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곡성읍·오곡면·삼기면·고달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업인 약 400명이 진료료를 받았다.

이번 의료지원에는 광주원광대 한방병원·대한의료봉사회·광주유일중 센터탈안과 등 3개 기관이 참여해 한방 진료, 구강검사, 시력검사 등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한방진료는 침 시술, 한방파스 및 제재한약 처방, 오십견 등 근골격계 질환 진료, 영양제 처방 등으로 구성됐으며, 광주원광대 한방병원 소속 의료진 15명이 참여했다.

대한의료봉사회는 구강관리 검사와 구내 사진 촬영, 치면세균막 및 치석 진단, 치료치료, 구강보건 교육 등을 진행하였고, 센터탈안과는 녹내장 등 눈 건강 검진과 검안, 돋보기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곡성군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농촌의 현실에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번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6·3 대선 집중홍보 돌입

영광군 투표율 올리기 온힘

영광군이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올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12일 장세일 군수가 군청 앞에서 직원들과 함께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선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소중한 한 표 행사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투표 참여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영광군 공직자들이 앞장서 참여했다.

“민주주의는 참여로 완성된다”는 의지를 담아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지역의 미래는 군민 힘으로 만들어 주길 요청’하는 메시지를 군민들에게 전달했다.

영광군은 ‘한 사람의 한 표가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공식 SNS(누리소통망)를 통한 온라인 홍보’, ‘포스터, 리플렛 배부’, ‘투표 독려 메시지를 담은 영상 제작’, ‘마을 방송을 통한 투표 안내’, ‘청사와 주요 거점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영광은 전통적으로 민주적 가치와 공동체 정신이 깊게 뿌리내린 지역”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더 나은 미래를 여는 큰 힘이 되는 만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신안군 햇빛연금, 환경 오스카상 ‘그린 월드 어워즈’ 금상

세계 최고 권위의 환경 시상식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호평

신안군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환경 시상식 ‘그린 월드 어워즈(Green World Awards)’에서 그린에너지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그린 월드 어워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노력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준 정부와 기업, 단체에게 수여하는 ‘환경 분야의 오스카’로 불린다. 세계 4대 환경상 중 하나인 권위 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작은 섬으로 형성된 신안군이 세계적인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그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라는 정책을 만들고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주민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주민들이 에너지정책의 중심에 서게 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얻어지는 혜택을 함께 나눠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무엇보다도 주민들 스스로가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안군 관계자들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환경 시상식에서 ‘그린 월드 어워즈’ 그린에너지 부문 금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 창립자 겸 CEO인 로저 웰린스는 “신안군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이익 공유에 관해 훌륭했고, 나는 30년 동안 모든 출판작들 중 이런 종류의 항목을 본 적이 없다”면서 “매우 혁신적이다. 기후문제를 해결해 가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구상이며, 그것은 지역사회를 돕는 새로운 방식으로 정말 훌륭하다”고 극찬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수상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을 넘어 세계의 롤모델로 우뚝 섰음을 의미한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과 함께 탄소 없는 섬, 풍요로운 신안’을 만들어 가는 길에 열정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전남도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광양시 경진대회 ‘대상’ 수상

광양시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해남에서 열린 ‘2025년 전라남도 지적재조사 업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 지적재조사 업무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적재조사 업무 수행 중 발굴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와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광양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단계별 설명자료 배부를 통한 민원 최소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과제를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구과제를 발표한 신승환 주무관은 “지적재조사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자료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하고,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지적 완성도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